

DELPHI

VERITAS VINCIT OMNIA

Crypto Nihilism

21세기 최대의 금융 실험이었던 크립토
는 과연 그저 디젠플의 광기와 어리석음
이 만들어낸 버블이었을까?



Is it worth it?

두 크립토 OG들의 크립토 니힐리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DELPHI

대답 대신 질문을, 답변 대신 관점을



매거진 델포이란?

그리스 델포이에 위치한 아폴론 신전은 고대 세계의 중심이자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수많은 왕과 현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델포이로 몰려들어 신의 뜻을 구했습니다.

델포이의 신탁은 때로는 난해하고 애매하여 다양한 해석을 낳았지만, 결국에는 옳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블록체인 세계의 '오라클'도 이 델포이 신전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오라클은, 델포이의 신탁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전달합니다.

그 모호함 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델포이의 신탁처럼, 매거진 델포이 역시도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며 그 안에서 진리를 품고자 합니다.

CONTENTS

04

신영서 Delphi Editor

시지프스의 반향은 실패일까?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크립토의 탈중앙화 정신은 이제 그저 농담 정도 밖에 되어버리지 않은 지금 이 시대, 크립토의 정신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

06

X article

Is it Worth it?

크립토는 카지노와 사기 이외에 다른 유용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까?

08

KP Jang xangle

코인판에 정녕 오아시스 란 없는 것일까

왜 크립토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토록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그리고 정녕 해결책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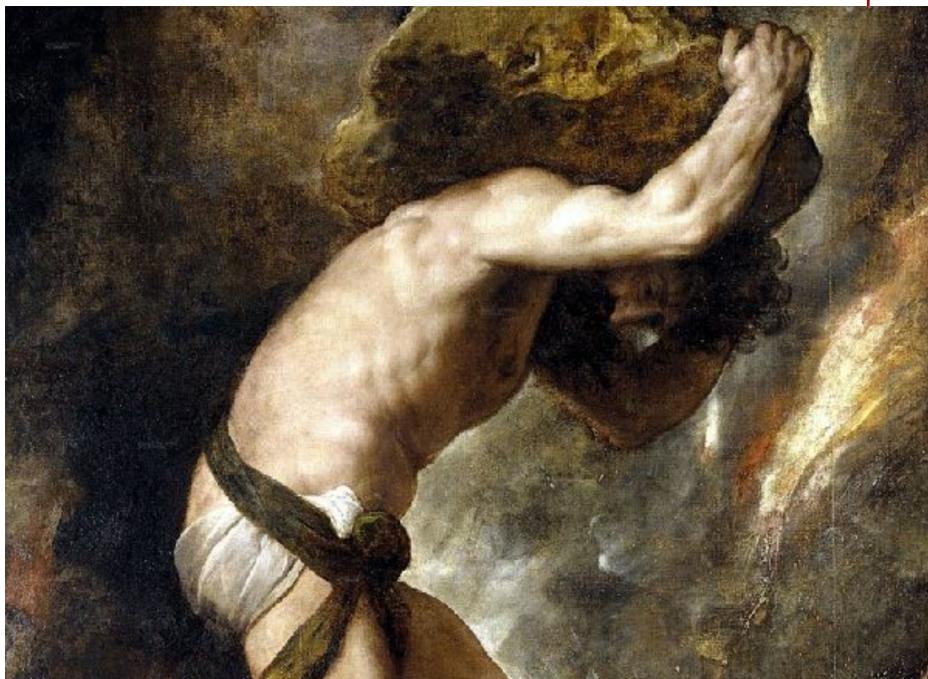
10

blockchain Valley

blockchain Valley Recruiting

블록체인 밸리 9기 리쿠르팅

시지프스의 반항은 실패일까



“본질적으로 저항은 금지된 선을 넘는 행위다. 역사의 수많은 혁명 이면에는 폭력과 불법, 그리고 범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2026년 초, 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걱정으로 가득한 이 시기, 크립토 커뮤니티는 독특한 감정에 쌓여 있다. 바로 크립토 허무주의(Crypto Nihilism)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실망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이다. 마치 모두가 지쳐버린 것 같다.

물론 이것은 다른 기술 혁신이 으레 겪는 진통을 크립토가 앓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크립토가 다른 혁신과 결정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크립토는 본질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항에는 두 측면이 있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 전쟁 같은 “낭만화된” 저항은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에 대한 대중들의 위대한 저항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디 저항은 그런 것 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저항은 금지된 선을 넘는 행위다. 역사의 수많은 혁명 이면에는 폭력과 불법, 그리고 범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저항의 원형을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신을 기만하고 제우스보다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던 시지프스는 결코 선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를 신들의 질서에 대항하게 만든 동력은 인류 구원의 의지가 아닌, 순수한 오만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시지프스의 저항은 실패한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역설을 목격한다. 영겁의 형벌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는다. 성공을 확신 해서가 아니다. 실패할 운명임을 알면서도 온몸으로 세상의 불합리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지프스의 존재 이유이며 신들의 왕 제우스 조차 꺾지 못한 그의 위대한 의지다.

크립토의 시작은 범죄적 의도가 아니다. 그러나 크립토의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도 범죄가 깊숙히 개입해 있다. 크립토의 성장 과정 역시 전통 금융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를 회색지대라는 평계 아래 태연히 하고 있다. 기술을 사랑하고 월가와 국가의 월권행위에 지친 자들이 이 곳에 찾아온 것처럼,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치 않고 하며 조금의 양심도 도덕률도 없는 자들 역시도 이 곳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피처로 선택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카지노 이외에는 그 어떤 역할도 찾지 못한 크립토의 현 주소에 지쳐버렸고, 탐욕을 가득 안고 뛰어든 사람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크립토에 대한 환상에 슬슬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대로 크립토는 말라 죽어가는 것일까? 월가와 워싱턴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크립토 역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으로 영원히 돌을 굴릴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한 것일까?

그러나, "저항"이라는 말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스닥의 수 많은 위대한 기업은 혁신을 말하지만, 그들은 저항을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미국 기업이며, 미국의 감시를 받는다. 그러나, 크립토는 그렇지 않다. 비록 몇몇 기업들은 미국 혹은 중국에 매여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이더리움은 전 세계인이 노드를 돌리고 있다.

결국 본질은 다시 저항으로 돌아온다. 현재 금융 팽창이 산업 팽창을 압도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전히 강해지고 있다. 국가의 지배는 더욱 엄격해지며, AI를 위시한 빅테크들의 지배는 서서히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저항"이라는 크립토의 내러티브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 이 높다.

크립토의 실험은 지금 실패했다. 저항의 정신으로 뭉친 크립토 세계는 지금 역설적으로 미국의 힘을 강화해주는 도구일 뿐이며, 범죄자들의 도피처와 도박중독자들의 카지노 역할 외에 그 어떤 쓸모도 없다. 그러나, 이 모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을 굴려야 한다. 그것은 크립토의 저항이 성공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크립토 허무주의의 핵심이다. 모든 저항은 실패를 맛본다. 중요한 건, 실패한 다음이다.

“
크립토의 저항이 성공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Is it worth it?

I Wasted 8 Years of My Life in Crypto

@kenchangh의 X article을 번역함

십 대 시절, 나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나를 급진적으로 만든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인 랜드(Ayn Rand)의 책들(『파운틴헤드』, 『아틀라스』)이었다. 2016년, 나는 꿈에 부푼 자유지상주의자로서 게리 존슨에게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나는 독실한 랜드 추종자였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심취해 있었기에, 크립토는 내게 자연스럽게 맞는 옷과 같았다. 사이퍼펑크(Cypherpunk)의 정신이 나를 매료시켰다. 비트코인이 부유한 개인들을 위한 개인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끌 빠져 있었다. 머릿속에 10억 달러를 담은 채 국경을 걸어서 넘을 수 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강력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크립토 안에서 목적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업계에서 전업으로 일하다 보니, 크립토가 가진 혁신적인 힘에 대한 초기의 달콤한 유혹은 점차 희미해졌다. 크립토는 금융 시스템을 분산화한다고 주장했고 나도 그것을 완전히 믿었지만, 현실은 그저 지금의 경제를 거울처럼 비추는 투기와 도박의 거대한 시스템일 뿐이었다. 그 현실은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카지노를 지었다. 스스로를 카지노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가장 크고, 온라인이며, 24시간 연중무휴인 멀티플레이어 카지노였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적어도 20대를 바쳐 이 카지노를 구축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말 그대로 20대 전체를 이 공간에서 낭비했다는 생각이 듈다.

아무런 금전적 동기 없이 크립토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독자들에게는 내가 이미 충분한 돈을 벌고 나서 크립토 산업을 떠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래, 어쩌면 나는 위선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경제의 금융화와 도박화라는 오물 구덩이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진저리가 난 것일 수도 있다.

크립토 산업에는 사용자가 '0명'임에도 높은 시가 총액을 가진 코인들이 롱테일(long tail)로 늘어서 있다. 현실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단순히 도박과 엔터테인먼트(참고로 카지노가 하는 일이 다)가 아닌 방식으로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면, 이런 제로섬 방식의 사업은 정답이 아니다.

이 업계의 사고방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해하며, 나는 이것이 젊은 세대의 사회적 계층 이동을 장기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 믿는다. 무가치한 게임들의 유혹을 뿌리칠 용기를 찾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CMS 헐딩스가 남긴 최고의 명언이 있다. "돈을 벌고 싶은가, 아니면 옳고 싶은가?" 나는 이번에는 옳은 쪽을 택하겠다.



It is worth it!

I do not regret spending 8 years of my life in crypto

@nic_carter의 X article을 번역함

kenchan은 최근 글을 통해 크립토 산업이 탈중앙화된 금융 혁명이라는 초기의 이상과 달리, 실상은 벤처 캐피털의 무분별한 자본 투입과 투기적 상품(밈 코인, 무기한 선물 등)으로 점철된 거대한 '24시간 온라인 카지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10년 전 비트코인이 소수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 마이크 헌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결국 크립토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나을 것 없는 투기장으로 변해버렸다는 뼈아픈 현실을 말했다.

헌과 창의 주장은 결국 다음 문장으로 요약된다. '크립토는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지만, 결국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크립토의 텔로스(telos), 즉 목적에 대한 논쟁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목적이란 무엇이었나?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대략 다섯 가지 진영이 있다.

1. 건전 화폐(Sound Money)의 복원
2. 비즈니스 로직의 스마트 컨트랙트화
3. 디지털 소유권의 실현
4. 자본 시장의 효율화
5. 전 세계적 금융 접근성 확대

그래서 누가 옳은가? 이상주의자인가, 냉소주의자인가? 아니면 제3의 비밀스러운 무언가인가?

내 진짜 대답은 이것이다. '실용적 낙관주의'가 올바른 태도이며, 크립토 카지노에 대해 비판론에 빠질 때마다 그 태도를 붙잡아야 한다. 투기와 광기, 착취는 유용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쾌하지만 피할 수 없는 외부 효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치러야 할 인간적 비용은 매우 실제적이며, 나는 그것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 밍 코인, 무의미한 도박, 금융 혐무주의가 특히 짚은 층 사이에서 정상화되는 것은 우울하고 사회에 해롭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 시장을 '허가 없는 레일' 위에 구축할 때 생기는 피할 수 없는(부정적일지도라도) 부작용이다.

따라서 과제는 팡글로스적 환상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기반을 둔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랜드식 자유지상주의 유토피아를 믿는다면, 당신의 기대와 크립토의 현실 사이의 불협화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카지노의 역학, 무제한적인 토큰 발행, 만연한 투기에 관해서라면, 그것들은 이 산업의 배에 돌아난 보기 흉한 사마귀들로 인정해야 한다. 떼어내기 매우 힘든 사마귀 말이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는, 상황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우리가 올바른 궤도에 있다는 증거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그저 그 텔로스를 기억하라.

OPINION

코인판에 정녕 오아시스는 없는가?



KP Jang Xangle CSO

"어쩌면 우리가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로 착각한 것
이 아닐까?"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현대인의 삶은 점차 척박한 사막으로 변해왔다. 이 메마른 현실에서 크립토 시장은 갈증을 해소해 줄 마지막 오아시스처럼 다가왔다.

초기에는 중앙집권적 통제에 저항하는 사이버펑크들이 터를 닦았고, 이어 변화를 감지한 열리 어답터들이 합류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수많은 리테일 투자자를 이 판으로 끌어들였으며, 이제는 글로벌 금융 거물들과 대기업 경영진마저 이 오아시스의 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아시스를 향한 여정은 기대만큼 푸르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실체는 생각보다 험난했고, 그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이 자산군이 제도권의 신뢰를 얻었음을 증명했고, DeFi와 PerpDEX는 중개인 없는 금융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예측 시장의 활성화는 우리가 발견한 분명한 '물줄기'였다.

그러나 이 물줄기가 강과 호수를 이루기도 전에, 오아시스 주변에는 목마른 이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 끊이지 않는 사기와 해킹, 서비스 안착보다 조기 엑싯(Exit)에 혈안이 된 창업가들, 그리고 거래소가 조장한 도박판 속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하며 시장의 신뢰는 메말라가고 있다. 그렇게 허무주의가 팽배했다.

문제는 이 위기가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라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이라 부르기 민망한 조악한 서비스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인 '디젠팅(Degen)'들은 대부분 서로의 돈을 뺏고 뺏기는 PvP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VC 투자 → CEX 상장 → 리테일 덤핑'으로 이어지는 약탈적 구조는 신규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참여자들마저 피로하게 만들었다.

사업가와 사기꾼의 경계가 모호해진 사이, 외부에서는 AI와 로봇공학 같은 유망 기술들이 압도적인 속도로 자본과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 심지어 이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며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내러티브만으로 갈 곳 없는 돈을 끌어모으던 방식은 더 섹시한 내러티브 앞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

현재 크립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고 본다. 실체 없는 프로젝트에 가치를 부여하는 관행을 계속 용인한다면, 이 시장의 발전은 멈추거나 도태될 것이다. 이제는 꿈을 팔아 내부자의 배만 불리던 시대와 작별해야 한다.



“허무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유용함의 증명뿐이다.”

가짜 혁신가들에게 훌러가던 자본을 회수하여,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와 같이 실제 유ти리티를 증명해 내는 훌륭한 빌더들에게 집중시켜야 할 시점이다. 평가의 잣대가 가혹해질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창업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업계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Web3는 시대정신이다>라는 논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AI와 빅테크가 부를 독점하고 노동의 가치가 희미해지는 시대에, 사용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과실을 커뮤니티에 되돌려주는 Web3의 ‘분배 문화’는 점차 뒤틀릴 자본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신기루인지 진짜 오아시스인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정화하고, 어떤 가치에 자본을 투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척박한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는 힘은 막연한 내러티브가 아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해 내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곳에 자본이 제대로 재배치되는지에서 나올 것이다.



Recruiting

고려대학교 블록체인학회

BLOCKCHAIN VALLEY 9TH RECRUIT

모집 분야

			
개발팀	리서치팀	코어팀	보안팀

Info

지원 자격

블록체인에 대한 열정을 가진 누구나

모집 분야

리서치팀 / 개발팀 / 보안팀 / 코어팀

모집 일정

서류 지원 기간: 1월 30일(금) 23:59

서류 합격 발표: 2월 03일(화) 20:00

면접 기간: 2월 06일(금) - 2월 15일(일)

최종 합격 발표: 2월 22일(일) 20:00

About

리서치팀, 개발팀, 보안팀, 코어 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된 고려 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입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세션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세션은 전문 역량과 지식을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공통 세션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학회원들은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DELPHI

VERITAS VINCIT OMNIA

